

구름 걸린 등마루 풀밭은 '천상의 초원'



◇매봉 아래의 백두대간 능선을 지나는 취재팀. 광활한 풀밭이 천상의 초원인 양 드넓게 펼쳐진다.



◇운해에 빠진 백두대간 노인봉에서 바라본 모습이다. 화면 오른쪽으로 길게 이어지는 능선 정상이 소항병산

백두대간 속으로 <35>

대관령→노인봉→진고개

배 구기 울음의 여운처럼 해 긴 운사월이다. 파팍한 봄 가뭄을 지나오면서 피어날 것은 다 피어났다. 꽃 같은 신록도 녹음으로 바뀌어간다. 어느덧 여름의 문턱이다.

초여름 한낮의 산은 풀 속 같다. 풀들 들쭉는 개울물이 아니라 작은 소리도 사이며 흐르는 속 깊은 강물 속 같다. 봄을 들어 올린 새싹들의 두터움도 찾아들었고, 색색으로 피어난 들꽃들로 이제는 답답한 표정이다.

이때의 배구기 울음소리는 풍경소리

같다. 적막을 깨뜨림으로써 오히려 적막에 밀도를 더하는, 떨어지는 오동잎에서 님의 자취를 본 만해의 '침묵'과 같은 '소리'다. 그 소리를 따라 산에 오른다. 표정을 조금 달리하긴 했어도, 조금도 낮설지 않은 여전한 산이다. 옷만 바뀌어도 달라 보이는 사람 같지가 않다.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든 산은, 그것이 자신의 전부이자 본모습이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지 때문이다. 아니, 보여주고 말 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있을 뿐'이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아직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지친 다리를 옮겨 놓는 일에 더 집착하는지도 모르겠다.



걸어오르지 않았어도 한참을 쉬었다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고갯마루, 대관령(832m)에 선다. 헤아려 보지 않고도 '아흔아홉 구비'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마는 혈준한 고개다. 영서와 영동이라는 지역 이름도 이 고개를 기준으로 만들어졌고, '관동'이라는 말도 이 고개의 동쪽이라는 말이었다.

실로 대관령은 기후, 풍속, 언어 등 사람살이의 모양새를 결정짓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대관령을 이렇게 적고 있다. "강릉부 서쪽 45리에 있으며, 이 고을(州)의 진산이다. 여진 지역인 장백산(백두산)에서 구불구불 비탈비를 남쪽으로 뻗어내리면서 동해가를

초여름 한낮은 물속같이 고요 대관령 범일스님 성황신 모셔

차지한 것이 몇곳인지 모르나, 이 고개가 가장 높다. 신허리게 옆으로 뻗은 길이 아흔아홉 구비인데, 서쪽으로 서울과 통하는 큰 길이 있다. 부차(附岫)에서 50리 거리가 '대령'이라 부르기도 했다.

대관령의 지리적 특징은 아니라, 우리 땅의 형국을 백두산에서 비롯된 산 줄기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백두대간을 명확히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다만 '가장 높다'는 기록상의 오류는 당시 측량 기술의 한계 탓이었지만, 영동 지방에서 서울로 가는 주 통로였던 만큼 심리적으로 가장 높은 고개로 의심없이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대관령에서 대간의 등마루로 오르는 초입은 호젓한 산책로 같은 분위기다. 그러나 능선에 올라서면 급세 활활한 분위기로 바뀐다. 키 큰 나무가 없는 데다 등마루마치 허연 속살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철쭉꽃 만발한 때, 연분홍 꽃무리를 이룬 철쭉을 스치며 지나노라면 여기가 바로 천상의 화원이 아닌가 싶을 정도

다. 산림청에서 인공조림한 분비나무와 전나무 식재지도 볼 수 있다. 지극한 정성이 보이는 만큼 멀지 않아 울창한 숲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들머리를 지나 반 시간 남짓, 이제 완전히 대간의 품에 안겼다는 느낌이 들 즈음, 대관령국사성황사'를 지난다. 이례적으로 스님을 성황신으로 모신 곳이다. 산신당에는 김유신을 모셨고 성황사에는 범일 국사(810~889)를 모셨다.

산신문의 하나인 굴산사에 40여 년간 머물며 사굴산파를 개산한 범일 국사가 성황신으로 받들어 지는 게 조금은 의아하지만, 이 곳에서 구전되는 전설을 보면 쉽게 수긍이 간다. 우선 스님의 탄생 설화부터가 범상치 않다. 어머니가 샘물에 뜬 해를 마시고 잉태했다는 것이다. 늘 동해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로서는 당연히 신으로 받들어 모시게 할 탄생의 드라마임이 분명해 보인다. 그밖에도 난리가 났을 때

대관령에서 습법을 써 적을 물리쳤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이름 되고 보면 누구라도 수호신으로 받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해마다 단오날이 되면 국사성황제를 지낸다. 넘치는 존경이 기겁지 않을 수 없다.

새봄 못미처서 하룻밤을 보내고 아침을 맞는다. 산 안개가 자욱하다. 동해에서 솟아오른 해는 구름바다에 빠져 버렸다.

새봄에서 선자령, 노인봉을 지나 매봉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등마루 서쪽은 천상의 초원을 이루고 있다. 비록 소의 먹이로 풀 풀을 기르는 곳이지만, 거침없이 이어지는 광활한 풀밭은 몸과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 놓게 하기에 충분하다. 흔히 볼 수 없는 이국적 정취와 동쪽 기슭의 원시적 풍경으로 다가온다. 공기 또한 국명만 대조를 보이는데, 왼쪽의 풀밭에서는 열기가 스멀스멀 오르고 오른쪽의 숲에서는 청량한 바람이 싱그롭다. 한 몸으로 동시에 두 계절을 맞는 듯한 즐거움도 각별하다.

가끔씩 구름이 발 아래 걸린다. 지나온 길도 가야 할 길도 다 지워진다. 하늘과 땅의 경계도 구름 속에 묻히고 만다. 이로써 백두대간의 등마루는 하늘로 오르는 길이 된다.

매봉(1173.4m)을 내려선 대간은 풀밭을

벗어나 이속한 숲으로 발길을 옮긴다. 숲은 물방울이 만져질 것 같은 짙은 안개에 싸여 있다. 비가 오려나? 숲은 잠시 예민해져 있다. 조심스레 걸음을 옮기는데도 안개에 젖은 나무들이 후두둑 물기를 떨어낸다. 그 물질을 따라 온방을 꽃 향기가 숲 가득 번진다. 다소곳이 고개를 숙인 방울 같은 작은 꽃에서 나는 향기로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화려하면서도 그윽하다. (산행 후 책을 찾아보니 '향수화'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

제법 가파른 오르막을 이루는 숲길을 벗어나니 다시 하늘이 열린다. 소항병산(1173.4m)이다. 이곳 역시 삼양축산의 목초지다. 남서 방향에 이웃한 황병산은 군사 시설물로 가득하다.

소항병산에서 노인봉 산장까지는 편안한 내리막길이다. 산장 조금 못미처서 전망대 바위를 만난다. 누워서 낙조를 감상하기에 딱 좋다.

노인봉 산장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고 노인봉을 오른다. 사방에 거침 것이 없는데, 눈 아래로는 운해가 얹혀져서 파도를 이루고 있다. 운해 너머로 오대산과 정봉산, 멀리 설악산까지 눈인사를 나눈다. 간간히 빗방울이 날린다. 촉촉히 젖은 진고개를 밟을 것 같다.

글=윤재혁 기자
사진=손재식(사진작가)

장업도량을 이루는 모든 것

태영산업이 함께 하겠습니다

보 금강경 독송100일 기도 대법회 **행**
입재: 불기2543년 (음) 3월 8일 회향: (음) 7월 21일
장소: 삼각산 본원정사 TEL. 902-7337

보 생전에 수재 **행**
기간: 6월 6일부터 9월 13일 (음) 4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
장소: 영남명사국립박물관, 명사: 대인사상대스님, 강사: 윤우수

보 불기 2539년 부처님 오신날 **축**
범시민 기초절사 지키기 '선재차, 후송차'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범우역, 정명동 742-8120

여름불교학교
기간: 2000.7.30~8.10 수려산 도선사

보 선망부도 일체 영혼들의 천도를 위한 **행**
백중맞이 49일 지장기도 및 7.7제
수려산 도안사

대학입시 백일기도
입재: 월 일 회향: 월 일

※ 각종 현수막

서울전지역 설치가능 (※ 설치비 별도), 지방은 우편 발송 태영산업 공장직영으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 취급 품목 : 리본, 어깨띠, 세계불교기, 법륜기, 감사패 등

※ 태영산업은 자사의 공장에서 직접 제작함으로써 높은 품질과 신속한 납품이 보장됩니다

농업 제작번호 : 053-02-124814 예금주 : 이태영

태영산업

주소 :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342-6번지
TEL : 02-433-9544 FAX: 02-433-9543 H.P: 019-278-1119
e-mail : lty64@korea.com 이태영 합장

전주용

자선암, 연화정사, 동암사, 사현사

※ 사찰이정표 건설교통부 지침 규격으로 제작하여 드립니다. ※ 안락 및 부식판

차량출입금지, 분리수거함

※ 바리케이트 ※ 분리수거함

아축공양(법동명·자동명), 계시판, 이태영 촛대공이, 각종 목간판